

정성들인 진품의 천만을 만드는 4개 사 전시회

◎ 전시장에서 한 벌 분 옷감의 오퍼를 받기 바쁜 4개현 제직업

후쿠이(福井) · 이시카와(石川) · 시즈오카(静岡) · 시가(滋賀) 4개 현의 기획 제안형 기업들이 제휴하여 정성들인 진품(眞品) 천(布)만을 만드는 4개사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2010년 전시 상담회에서는 전시장에서 “옷감 한 벌 분의 오퍼를 받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2009년 9월 중순에 들어 픽업된 소재 스와치(swatch) 등을 포함하여 4개사는 이에 대응하는 작업으로 바쁘다. 또한 아이템에서 보관 제휴(保管 提携)를 해보는 방도도 찾아보려 하는 것 같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시가현의 다카하시 직물(高橋 織物)이 처음으로 참가하였으며, 후쿠이현에서는 미사와(三澤) 제직 공장, 이시카와현에서는 야마모토 견직(山本 絹織), 시즈오카현에서는 가네다 직물(金田 織物)의 4개사 전시회로 넓혀져, 이틀 동안 도쿄의 후쿠이현 비즈니스 지원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참관 기업수는 11개사이고, 참관자는 167명으로 2009년 봄에 개최된 3개사 전시회보다도 기업수는 배로 늘고 참관자 수는 약 60명이 늘었다. 픽업(pick up)된 소재 샘플 점수도 781점으로 늘었다.

전시회 개최 직전에 준비 관리 작업을 돌봐주는 대표는 “재고 조정(在庫 調整)을 강요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참관(參觀) 오는 것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첫날 오전부터 어패럴 업계, 생지 도매상을 비롯하여 디자이너wm 브랜드(designer's brand)의 ‘히로코 고시노, 잇세이 미야케, 콤데 같슨’ 등과 관계자들이 쉴 틈 없이 참관하며, 4개사가 제안한 소재 샘플을 손으로 만져보며, 촉감, 기능성의 감촉을 직접 만져보고 있었다.

회장을 돌아본 섬유 상사들은 “전시회를 거듭할수록 제안하고 있는 상품의 베리에이션이 충실해지고 있다. 진품만을 만들며 우리가 채용하고 싶은 소재가 눈을 끈다. 그와 같은 적극적인 발신으로 팬도 많고 주목도도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한국, 중국에서는 만들 수 없는 하이-퀄리티(high quality) 소재를 보려고 왔다. 실제로 인지도를

높여 매우 흥미롭다.”는 등, 권위자(權威者)의 눈에 든 소재를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다.

◎ 용도 개척으로 새로운 것 발견 - 다음 봄철 전시회는 5개사 전시회

정성들인 진품의 천만을 만드는 4개사 전시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도 “가격을 빼고는 상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신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근처에서 찾아내고 보니 일본의 텍스타일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섬유 흐름의 하류 기업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참가한 다카하시 직물(高橋 織物)은 ‘코튼 100%의 오건디(organdie), 6겹 고즈(6重 gauze), 코튼·실크 고즈(cotton·silk gauze), 코튼·실크·울 3겹 고즈(cotton·silk·wool 3重 gauze)’ 등이 인기 소재였으며, 가네다 직물은 멘즈 테이스트(men's taste)의 소재가 미세스(Mrs.)에 적합한 어패럴로 관심을 끌었고, 코튼 강연사 직물(cotton 強撚絲 織物) 등이 선택(選擇 : choice)되었다. 상품 만드는 데까지 상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야마모토 견직(山本 絹織)에서는 선염 자카드 직물로 의식적으로 무늬를 바림(gradation)한 조직의 변화 버전(變化 version)이 인기를 끌었다. 미사와 제직장(三澤 製織場)은 폴리에스터 필름과 울의 교직 소재가 인기 중에서도 핵심이 되었다.

4개 출품사의 테이블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개발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것이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밑천이 되어 스텝 업(step up)하는 스테이지를 만든다고 각사의 사장은 의식하고 있다.

전시장에서 새로 발견된 것도 있었다. 생활 자재 분야(生活 資材 分野)의 다양한 용도들이 새로 발견되었다. 부인 의류 소재에서는 고감성, 고기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섬유 상사의 담당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다. “레이디스(ladies)의 변화 소재로 2차 가공을 하면, 구두용 소재나 가방지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례였다.

이제까지 패션 세계만을 주시해온 제직업자에게 자극을 주었다. 이틀간의 전시회를 통하여 전시회의 준비, 관리 작업을 돌봐주는 대표인 미사와 제직장의 대표는 “4개사에서 잘 팔리는 섬유 공정 하류 기업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전시회를 “전국구의 간판으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미 2010년 3월에 개최하기로 한 이 전시회에는 후쿠시마현의 염색 정리업이 참가하

기로 결정되어 있어, ‘정성들인 진품 천 5사 전시회’가 된다. 또한 2010년 9월의 개회 스케줄(schedule)도 정해져 있어, 그 때에는 후지요시다시(當土吉田市)의 제직 회사가 참가할 예정이며, 6개현 6개사(6個縣 6個社)가 제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